

# “민족정신 숨쉬는 古都 지켜야죠”

## ‘경주’ 화폭에 담는 두 화가

목화전 여는 박대성씨



2년간 경주를 수차례 드나들면서 불국사 석굴암 다보탑과 석가탑 남산 등 경주의 사계를 담은 대형목화 37점을 선보이고 있다. “중국의 돈황, 인도의 타지마할, 실크로드, 이집트 등 세계 곳곳의 명소가 보았습니...

서 박문선씨는 현대적 조형미가 느껴지는 후불탱화 남산의 아기불처럼 친진한 모습의 흙으로 빛은 소소 불상, 삼동굴과 탑골을 주제로 한 동판화를 전시해 화제를 모았다. “경주는 역사적이...



남산테마전 준비 박문선씨



박문선씨의 남산주제 동판화.

## 경주4계 그린 37점 선보여

천년 고도의 향취와 아름다움을 고스란히 간직해 우리 민족의 영원한 고향이 되고 있는 경주. 그러나 경마장 고속철 고속아파트 등 개발로 인해 몸살을 앓고있는 경주. 경주를 누구보다도 사랑하며 그 아름다움을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는 두 화가의 최근작업이 화

제를 모으고 있다. 오는 7일까지 서울 종로구 관훈동 가나화당에서 경주를 주제로 한 대형 목화전을 갖고 있는 박대성씨와 내년도 경주남산 테마전을 앞두고 현재 동판화작업에 여념이 없는 박문선씨. 이를까지도 불국사를 건축한 김대성과 같은 박대성씨는 지난

주만큼 아름다운 곳이 없었습니다. 경주는 자연과 인간 그리고 문화재가 함께 어우러져 살아있는 동양정신의 진수입니다. 남산 곳곳에서 친근하게 웃고 있는 석불을 보면 인간의 원초적인 불성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번 경주전에서는 먹을 사용해 거침없으면서도 세심한 필치와 수묵담채가 주는 기품과 묵직한 아름다움이 느껴진다. 지난 10월 서울에서 연 ‘경주이야기’란 주제의 개인전에

## 동판화 15개작품 남산 조망

남산에는 78체의 마애불과 보살상이 골짜마다 조형되어 있어. 그 자체가 독립적으로도 장엄성과 예배의 대상이 되지만 남산 전체를 한눈에 내려다보면 마치 중생의 세계를 내려다보는 불국도 같습니다. 구불구불 능선들이 연결되어 있는 사이사이 탑과 불상들이

자연스럽게 자리하며 연꽃과 구름등으로 장식된 한쪽의 만다라는 20일만에 태어난다. 박문선씨는 경주가 주는 마력에 흠뻑 빠져있으며 이 동판화작업이 화력에 또하나의 이정표가 될 것을 확신하고 있다.

이경숙 기자



지명스님의 육신불 동기 모습.

## 봉정사 대웅전 단청문양모사전

7일까지 동국대서... 29일 전통문화학술회 열려

동양건축의 정미미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단청문양모사전이 오는 7일까지 동국대학교 90주년기념문화관 특별전시실에서 열리고 있다. 이번 전시는 동국대 문화예술대학원(원장 홍흥식)이 동국대 개교 90주년을 기념해 마련한 것. 우리나라 단청중 그 역사가 가장 오래 되었고 특이한 경북 안동 봉정사의 단청문양을 모사하여 전시하는 이번 모사전에는 봉정사문양 50여점과 찬

조작품 21점등 모두 71점이 전시되고 있다. 한편 전시회와 함께 97년 문화유산의 해를 앞두고 우리 전통문화의 올바른 인식을 토대로 한국문화의 새로운 발전가능성을 모색해보는 ‘전통문화학술회’가 지난 11월 29일 동국대 90주년기념문화관 예술극장에서 개최됐다. 이번 학술회에서는 이기백 교수(한림대 석좌교수)가 ‘전통문화의 개념과 역사상’ 홍기삼교수(동국대)가 ‘한국문화의



봉정사 대웅전 단청을 모사한 쌍용도.

전통과 현대적 계승’ 이상일교수(성균관대)가 ‘한국연회의 전통과 오늘의 과제’ 박범훈교수(중앙대)가 ‘전통음악의 새로운 전망’ 김동현씨(국립문화재연구소장)가 ‘전통건축연구의 재검점과 전망’ 정영호교수(교원대)가 ‘한국미술의 전통과 그 전망’ 등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정영호교수는 불탑 불상 부도 석등 당간 불구 사리구 등 불교미술에서 전통미술의 시원을 찾았다.

## 김교각스님전 9만명 관람

“지방보살 덕화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체험”

지방보살로 추앙받는 신라왕자 김교각전이 지난 9월 17일 개막 이래 총 9만여명이 관람한 가운데 지난 11월 29일 개막 이래 총 9만여명이 관람한 가운데 지난 11월 29일 개막 이래 총 9만여명이 관람한 가운데...

관람한 사람들도 셀 수 없었으며 주지스님이 어린이 법회와 새싹분자들을 이끌고 전시장을 돌며 자세히 설명해 주는 풍경도 호모했다. 스님인 줄에 신도들이 단채로 많이 오셨는데 특히 청룡사 신도들은 동참비를 보며 덕을 쌓고 향 등을 마련 지장스님께 정성껏 공양올리는 모습도 이채로웠다. 불교를 잘 모르는 일반인들도 호기심에 전시장에 들어와서는 감격을 담뿍 안고 돌아가곤 했다. 대구전시에서는 특히 뛰어난 대가들의 작품이 많이 눈에 띄었는데 특히 청룡사 신도들은 동참비를 보며 덕을 쌓고 향 등을 마련 지장스님께 정성껏 공양올리는 모습도 이채로웠다. 불교를 잘 모르는 일반인들도 호기심에 전시장에 들어와서는 감격을 담뿍 안고 돌아가곤 했다. 대구전시에서는 특히 뛰어난 대가들의 작품이 많이 눈에 띄었는데...

환희심에 겨워 몇번씩 와

## 일지암 茶수련원 완공

다성 초의선사가 주석하며 차문화의 중흥을 도모했던 한국차의 성지 일지암이 법당과 차수련원 ‘설립당’ 복원중장물사 회향법회를 지난 11월 23일 봉행했다. 14평 규모의 설립당은 전통양식의 차가마를 설치, 차를 따서 법제하고 차에 관련한 교육을 실시하는 대중교육장으로 활용된다.

## 8일 ‘맑고...’ 가족음악회

맑고향기롭게 모임(회주 법정스님)은 오는 8일 오후2시 동국대 중앙당에서 제3회 맑고 향기롭게 가족음악회를 개최한다. 전국의 맑고향기롭게 모임에서 음악에 재능있는 회원들이 가족 또는 이웃단위로 참가하는 이번 음악회는 법정스님의 법문, 장학금 전달식 등의 행사도 함께 열린다.

## 문화소식

### 웅궁사 연화합창단 공연

부산 해동 웅궁사 연화합창단 창단 1주년 기념 음악회가 오는 10일 저녁 7시 부산시민회관 소공연장에서 개최된다. ‘꽃으로 앉은님’ ‘찬미의 나라’ ‘우리도 부처님 같이’ 등 10여곡이 연주된다.

### 석강작품전 8일까지

캐나다에서 활동중인 중견 한국화가 석강씨가 12년만에 귀국전을 갖는다. 오는 8일까지 조선화랑(516-3437)에서 개최되고 있는 석강작품전에는 과묵과 발산하는 채색이 조화된 과묵의 ‘자연으로서 삼의 모습’ ‘감골조형’ 등 77점이 선보이고 있다.

## 김복희무용단 창단25주년공연

김복희무용단이 창단 25주년을 맞아 12월 3·4일 오후7시 문예회관 소극장에서 ‘향’ 소품 7편, 26·27일 오후7시 같은 장소에서 ‘꿈, 탐욕이 그리운 그림’ 등 대작 6편을 공연한다. 독실한 불자인 김복희씨는 서정주의 시 ‘국화에서’를 안무한 작품을 직접 춤출 예정이다. (02)290-1332

## 불교언론 보도사진전

한국불교기자협회(회장 하춘생)가 주최하는 제1회 불교언론 보도사진전이 오는 9일부터 16일까지 개최된다. 96년 올해 불교계의 주요 흐름을 40여점의 사진으로 일별할 수 있는 보도사진전은 9일 불교언론인의 밤 행사에 맞춰 동국대 개교90주년기념관 그라운드에서 개막되어 10~16일 사간동 법원사 불일미술관에서 개최된다.

## 불심시심 <70>

그대는 별, 나는 달

一星天上落 (일성천상락)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
五馬路江南 (오마로강남)	다섯 필의 말 강남을 찾다
德振風行華 (덕진풍행초)	풀 위에 불리는 바람같은 덕
心虛月印潭 (심허월인담)	마음 비어 달은 못에 비치다
訟餘來鳥雀 (송여래조작)	공무 여가엔 새해도 찾아오고
霧了繞清談 (금로속청담)	거문고 마치자 맑은 이야기 이어지네
照夜光無盡 (조야광무진)	밤 밝히는 빛 끝 없어서
寒輝物外簾 (한취물외잠)	싸늘히 이 물외의 자리 비추오

무용대사가 강남부백에게 준 시이다. 그러니까 스님의 처지에서 지방장관에게 준 것이다. 시어의 내용은 지방장관에 대한 찬미로 일관되어 있지만, 시의 소재적 선택이나, 시어의 흐름은 스님으로서의 법도를 잃지 않고 있다. 첫 연에서 상대방을 하늘에서 벌이요 땅에서는 말로 비유하는 수사상에서부터 시의 수사성이 뛰어나 보인다. 이렇듯 별과 말로 상징되는 장관이나, 그 덕은 바로 풀 위에 불리는 바람이다. 백성은 이 바람의 향방으로 쏠리는 풀이요, 이 풀의 영양으로 살아가는 양이다. 공무에 아무리 바쁘지만 달빛으로 비유되는 해맑은 본성의 진여는 잃지않은 장관이다. 백성은 순수하다. 모두 비어있는 마음이다. 풀의 속성처럼 잔잔하다. 여기에 장관의 덕스러운 마음바탕이 인찍혀지는 것이다. 이렇듯 상대방을 칭송하면서도 그가 하여야 할 의무와 직분을 시어에 담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시어들은 불가 분유의 비유를 함축하고 있으나, 이것이 스님들의 높은 문학성이요, 또한 중생의 제도력이라 해야 할 것이다. 이어지는 시어는 관장으로서 집무의 여가에 즐기는 인간적 한적함이다. 공무의 여가에는 자연과도 친할 수가 있으니, 송사의 여가에 찾아오는 새대이고, 거문고를 멈추면서 또다시 이어지는 해맑은 대화들이다. 그러기에 스님을 찾거나 스님이 찾아가는 만남이 될 수 있었다. 두 사람 사이를 밤새워 비추는 달빛은 너무나 고결한 자리이기에 싸늘한 빛으로 상징되고, 그 자리는 사물 밖의 물외의 자리가 되었다. 그야말로 격의없는 만남이나, 하늘에서 떨어진 별과 강심에 잠겨있는 달의 만남이라 해주자.

이종찬 <동국대 교수>

## 사찰식단 인스턴트식품 늘어

이윤희씨 ‘스님의 영양과 건강’ 발표

서구화되어가는 음식생활과 인스턴트식품의 범람으로 사찰음식도 많이 변모하고 있다. 가공식품, 인스턴트식품의 섭취, 수행자에게 부적합한 섭생과 영양의 불균형으로 스님들 가운데 당뇨 병 등 각종 질병의 발병율이 높아가고 있다고 한다. 스님들의 건강이 나빠져가는 것은 가공식품과 인스턴트식품의 범람이 사찰음식에까지 밀려들고 있다는 반증이다. 이윤희씨(동국대 가정교육과 강사)는 지난 11월 28일 동국대 학림관 교육매체센터에서 열린 가정교육과 학술 세미나에서 ‘스님들의 영양과 건강’을 주제로 발표했다. 서울과 경기도의 도심과 산중사찰을 무작위 선정하여 스님 406명을 표본조사해 사찰음식이 어떻게 변모했나와 이것이 스님들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를 살펴보고자 했다. 오신채는 산중사찰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데 비해 도심에선 47.6%가 사용하고 있었고 화학조미료는 산중은 25%, 도심은 66.7%가 사용했다. 전체조사스님의 59.1%가 정상체중, 31.5%가 체중부족, 9.4%는 과체중으로 나타났다.

### 현대불교신문 창간 2주년 기념 출판

조계종 종정 율하 스님을 비롯한 큰스님 33인의 법어 모음집

# 중생이라는 이름의 부처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빛이 될, 선지식 33분의 육성법어집

언어를 넘어선 언어의 참된 맛

오직 수행만을 ‘일 없음의 일’로 삼는 우리들의 큰스님. 그런 스승들이 계시기에 아직 우리 사회는 빛을 잃지 않고 있다. 45년 간 설하시기도 ‘나는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無說一字).’는 그 정신을 잃지 않고는 큰스님들의 ‘말’에 다가갈 수 없다. ‘일 없음의 말’인 까닭이다. 이 책은 바로 그러한 큰스님들의 육성법어를 동시대인들과 나누기 위해 ‘현대불교’에서 기획한 ‘지상법석’을 엮은 것이다. 어떻게든 깨닫게 하려는 큰스님들의 간절한 사랑이 때론 서늘퍼런 일갈로, 때론 자상한 언어로 펼쳐진다. 뒤집힌 꿈에서 깨어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전국 주요 서점에서 판매중입니다.

이시아문은 ‘듣는 바, 한 치의 어긋남도 없이 전하겠다’는 정신으로 시대의 빛이 될 책들을 만들었습니다. 이시아문 서문서 종로구 견지동 110-33 전화 (02)737-0695 팩스 (02)737-0696

현대불교신문사 엮음  
신국판 342쪽 / 값 7,000원